■ 업그레이드 me 주식투자, 고수로 가는 지름길

저평가된 기업 찾아 장기투자하라

주식 투자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잘하면 '쪽박' 더 나쁘면 '패가망신'이라는 비관론에 이른다. 이는 주식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묻지마 투자'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주식이 재테크의 수단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식투자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기'를 자제하고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주식 매매를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치투자의 전도사' 조용준씨가 펴낸 '한국의 개미들을 위한 워런 버핏 따라하기'에서 저자의 동의를 얻어 책 내용을 발췌한다. 그는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 제조팀장 시절 '3년의 선택, 3배의 주가 보고서'를 작성해 조선업종에 대한 장기투자를 주장, 10배 이상 고수익을 올려 증권가를 놀라게 한 가치투자 전문가이기도 하다.

기업 가치와 주가는 다르다

주가를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야 한다.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청산가치 보다 50% 가까이 저평가 됐을 때 매입한 뒤 장기보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될 때 기다리라는 설명이기도 하다.

복리의 마술을 믿어라. 연간 20% 수익률이 높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자에 붙는 이자 즉,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효과를 가져온다. '복리의 마술'이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든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데 담배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KT&G나 통신업계의 KT 같은 회사다.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안전마진은 기업가치와 주가의 차이를 말한다. 진폭이 큰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워런버핏의 투자 제1원칙인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은 주식투자의 금언이다. 주식투자는 기업가와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내가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결론이다.

하락장 즐기고 분산 투자를

주식투자의 대표적인 격언으로 분산투자를 강조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이 말 뜻을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모르는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워런버핏은 주식시장에서 위험 분산은 안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커진다고 충고한다. 골자는 내가 잘 아는, 내 주변의 기업의 주식을 사라는 말이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기적인 투자가들이라면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야 하며, 기업의 가치가 일정할 때는 오히려 주가하락을 즐겨야 한다고"까지 얘기했다. 그는 시장상황이 부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는 내용의 기사를 읽으면 미소지으라고 말한다.

버핏에 따르면 조만간 주식을 팔 사람이 아니라면 주가상승에 기뻐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유행을 좇는다. 그러기에 앞서 버핏은 동료들에게 충고한다. "노트를 펴고 글로 써보세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지. 내가 사려고 하는 주식이 왜 싼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단 한 주도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금감원 전자공시 보면 모든 기업가치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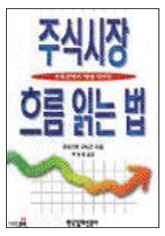
개인투자자들도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사진)을 통해 기업의 각종 공시 자료들을 디지털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영업현황 등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 자료가 올라와 있고,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을 검색했다면 살펴야할 것은 사업·분기·반기보고서다. 이 3가지 서류를 들여다보면 기업의 사업 현황과 사업실적,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

그밖에 주식을 사거나 팔때 공시하는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서와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분내역을 공개하는 주식의 대량 보고서 등이 있다. 기업 주식소유 변동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와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사업의 개요, 매출 및 경영상의 주요 계약, 주주나 임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등에 상세 정보가 들어 있어 기업의 백과사전으로 불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주식투자 가이드 북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 '주식시장 4계절론'으로 주식투자 지침서의 고전에 오른 책이다. 전반부에 소개되는 금융장세·실적장세·역금융장세·역실적장세라는 4계절론에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것은 인플레이다.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자금흐름이 내렸다 올랐다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산업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지금도 유효한 면이 많고 주식입문서에서는 반드시 거론되는 이론이다. 〈우라카미 구니오 지음·한국경제신문·8500원〉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통해 고유가, 식량위기, 서브프라임 등 세계 경제현상과 금융위기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우리가 맞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를 통찰한다. 통찰 편과 분석 편, 두 권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단순히 종목 찾는 법을 찍어주거나 기술적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주식시장이나 경제현상의 표면에 감춰진 정치·사회·경제적 요인과 역사를 고찰하고, 더불어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주식투자에 대한 오해와 거짓을 고발한다. 〈박경철 지음·리더스북·2만원〉

◇월가의 영웅들이 말하는 투자의 지혜 = 찰스 다우, 벤저민 그레이엄,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최고의 주식투자 귀재들과 시장 권위자들의 투자비법을 소개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와 분석가의 글과 강연 46편을 모았다. 분석, 투자 철학, 전략, 시장주기, 내부인의 시각으로 본 증권거래소, 악명 높은 투자자들에게 배우는 교훈, 주가 대폭락에서 얻은 교훈, 주식투자 이외의 투자 상품의 8개의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피터 크라스 지음·국일증권경제연구소·1만90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